

지역 소식 통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갓기 홍보 릴레이 동참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은 최근 졸업생 환경시설사업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분 위기 확산에 함께하기로 했다. 사업소 직원들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고 장학금 후원 분위기 확산에 함께하기로 했다. 박연길 환경시설사업소장은 "직원들과 함께 정기 후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환경관리원들에게도 장학사업과 후원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가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작기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 심사 결과 2026년 본예산 대비 686억원이 증액된 총 9,488억원으로 최종 심사되었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성만 의장은 폐회사에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율 저하와 농작물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관정 점검과 농업용수 확보 등 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지역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촌공간 새롭게 짠다

‘거점별 특화성장·지속가능한 순환구조 형성’ 핵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 나서

민선 9기 고창군이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특화성장 거점과 순환구조 형성'을 핵심으로 농촌공간계획을 마련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7월 29일 동리국악당에서 지역주민과 기관·사회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기본계획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10년(2026~2035년)간의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농촌 고창(K농촌공간의 기준을 고창이 만든다)'로 설정됐다. 지역별 특화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경제 순환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농촌재생활성화 지역을 3개 권역으로 편성했다. 권역별 △서북부(생태관광중심=상하·해리·심원·부안·야산) △북동부(산업·일자리중심=흥덕·성내·신림·고창·고수) △서남부(농업·식품중심=공음·무

장·성송·대산)로 특화된다. 고창군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창군 농촌공간 정책심의회의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고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창군 농촌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출범

10월 8일 축제 개최 예정… 신임 위원장 강연천 위원 선출

정읍시가 10월 8일 개막하는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 개최를 이끌 제7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는 지난 4일 이학수 시장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기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축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중심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강연천 위원이 제7기 추진위원장에 선출됐다. 강 위원장은 현재 정읍시 이·통장연합회장과 산내면 이·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올해 축제의 세부 추진계획과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구절초 지방정부의 경관을 살린 행사 구성과 방문객 편의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해마다 축제 현장에서 온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명품 경관을 선보이고 정원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적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제가 열리는 구절초 지방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지방정원이다. 구절초 꽃축제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읍의 대표 관광행사로 성장해 왔다. 특히 구절초 지방정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해마다 가을이면 순백의 구절초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시는 제7기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진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세부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린다. 순백의 구절초와 다채로운 가을꽃이 어우러진 정원을 배경으로 6개 분야 40여 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물빛축제에 3만명 몰렸다… 먹거리 소비 ↑

가족 단위 · 젊은층 몰려… 먹거리 매출 6300만원 등 대흥행



'2026 정읍 물빛축제'가 사흘간 방문객 3만명(경찰 추산 1만 7000명), 먹거리 매출 6300만원을 기록하며 흥행 성과를 거뒀다. 정읍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2일까지 정읍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 일원에서 물놀이와 공연, 먹거리를 결합

한 도심형 여름축제를 선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졌고, 축제의 열기는 먹거리 소비로 확산됐다. 먹거리 판매 공간에는 축제 기간 내 방문객이 몰렸다. 다양한 먹거리와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체류시간을 늘리고 현장 소비를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탰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벽천분수도 방문객을 불러 모으는 핵심 역할을 했다. 기존 미로분수와 연계된 수변 공간은 낮에는 물놀이 장소로 활용됐고, 밤에는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물 음악 공연(워터 뮤직쇼)과 레이저 공연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국카스텐과 육종만밴드, 하하·스컬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전자음악(EDM) 파티와 춤 공연도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먹거리·체험 공간과 미로분수 물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다양한 연령층 참여를 이끌었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안전관리 인력 배치로 안전한 행사 환경을 조성했다. 폭염에 대비해 프로그램을 야간에 편성하고 얼음 생수를 무료 제공했으며, 이동식 냉방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도 운영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버리던 가로수 가지가 에너지로… 정읍시, 처리비 · 탄소 줄인다

포레스트 주식회사와 '미이용 산림자원 무상 처리 협약' 체결

정읍시가 버려지던 도시숲과 가로수의 전지 부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되살려 폐기물 처리비와 탄소 배출을 함께 줄인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2층 시장실에서 포레스트 주식회사와 '미이용 산림자원(바이오매스) 무상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이용 산림자원은 산림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 가운데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



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목재 자원을 말한다. 지역에서는 주로 도시숲과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동안 이러한 가지와 부산물은 임목폐기물로 분류돼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레스트 주식회사가 해당 부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한 뒤 목재칩 등으로 가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한다. 시는 임목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던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AI 루키즈 고급과정' 성료

관내 농업인 · 소상공인 AI 비즈니스 실무 역량 제고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관내 농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AI 비즈니스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AI 루키즈 고급과정'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을 통해 AI 활용의 첫걸음을 뗀 관내 농업인, 소상공인, 지역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2회, 총 12회차(40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해 최종 15명 정에 수료생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 교육생들이 직접 기획·제작한 영상을 글로벌 AI 영상 에디터 '캡컷(CapCut)'이 개최하는 세계적 AI 영상 공모전인 'CREATE AI 페스티벌'에 직접 출품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사업 광고나 단편 영화 못지않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준 교육생들의 작품은 향후 글로벌 공모전 무대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부안 로컬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채 부안군 농촌협력과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상품과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갯벌 위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쉼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쉼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쉼니어는 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와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